

3》개관 7개월 차인데 “선승관이 뭐예요?”



4, 5》양 캠퍼스 대학가 건축법 위반 실태



6》학교직원 절반은 2년마다 교체되는 비정규직



2018학년도 논술고사

1주일 연기된 수능시험으로顺延된 우리학교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시험이 지난달 25일, 26일 실시됐다. 서울과 국제캠퍼스의 논술우수자전형 지원자 수는 각각 30,515명, 17,874명으로 72.7:1과 44.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진=커뮤니케이션센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안 ‘대학 기본역량진단’ 발표

도준록 기자 dgl0915@khu.ac.kr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신 격인 정책이다. 김상곤 부총리에 따르면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전체 대학 중 하위 40%로 평가받은 대학들은 총 2만명 만큼의 정원감축을 권고받는다. 동시에 상위 60%로 평가받은 ‘자율개선대학’들에는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한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가장 다른 점은 지역별 상대평가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반대는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5개 권역으로 나뉘고, 전문대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5개 권역으로 나뉜다. 권역별 상위 60% 대학으로 평가받은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를 피하며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을 받는 데다, 타 재정지원사업 지원 시 인센티브를 얻는다.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던 수도권 대학들도 이처럼 지역별 평가를 받게 되므로 치열한 진단 준비가 예상된다.

이 1단계 진단에서 교육부는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1단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2단계 진단을 받는다. 이 대학들은 2단계 진단을 통해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지역사회, ▲기여도·재정,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진단받고 12단계 결과를 합산

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2단계 진단을 받았더라도 기본 요소 등이 우수한 일부 대학의 경우는 검토 후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될 수 있다.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40%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대상이다. 교육부는 정원감축 권고 수준에 대해 “2만명 이내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2017년 12월 중으로 진단 방안을 확정하고, 2018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1·2단계 진단을 진행한다. 최종결과는 2018년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은 2019년부터 지원된다. 이후 2020년에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보완 평가를 시행해 개선된 대학은 추가

재정지원 노력 및 재정지원제한이 해제된다.

한편, 지난 12월 1일 교육부가 각 대학 관계자를 초청한 관련 공청회는 반대자들의 무대 점거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공청회 진행을 막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등교육재정 확충하고, 고등교육혁신 대책 수립하라”며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정책원 권오병 원장은 “소요에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평가를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오병 원장은 “우리학교의 경우 정량적인 부분에서 괜찮으나 융합전공 개설 등 학사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정부의 취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모두 만족하는 묘안을 찾는 데 온 구성원이 이해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마 컨퍼런스’ 11월 16일부터 3일간 ‘교육의 미래’로 머리 맞댄 학생과 석학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현지시간 14일 오후 7시(한국시각 15일 새벽 3시), 다양한 전공과 연령의 ‘로마컨퍼런스기획단’ 22명이 ‘Conference on Future Education’에 참여하고자 약 13시간의 비행을 거쳐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다. ‘속도와 복잡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대의 효과적인 학습’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는 16일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대학에서 처음 개최돼 올해로 2회를 맞았다. 세계대학총장연합(World University Consortium), WAAS(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Rome Tre 대학이 주최하고 세계석학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교육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는 우리학교 교내학생이 컨퍼런스에 참여해 교육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 한 축을 담당했다.

3일에 걸친 컨퍼런스는 발제와 논의, 취합과 결론으로 진행됐다. 첫날, Rome Tre 대학 Luca Pietromarchi 총장은 “우리는 큰 패러다임 속에 있고 교육은 항상 우리 사회의 중심”이라며 “대학 또한 재정, 교육 등 불명확성의 시대를 걷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컨

퍼런스의 첫 발언을 열었다. 세계대학총장연합 Kakha Shengelia는 연립장, 루마니아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된 첫 대통령인 Emil Constantinescu 전 대통령 등 참가연사들이 교육에 대해 비전과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학생 세션에서 Rome Tre 대학 국제관계정치 전공 과정의 마르코 씨는 “세계화 시대에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대학은 이를 대비하면서 인간과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학교 기획단은 기존 평가방식을 교육문제로 짚었다. 기획단 발표자 백채린(자율전공학 2017) 씨는 “배움과 시험의 간극, 이론과 실제의 간극,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의 간극을 접해왔다”며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을 촉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3일 동안 진행된 컨퍼런스의 마지막 발표를 맡은 국제 베이스 연구소 Nora Bateson 소장은 “와인에는 분명 포도가 들어있지만, 포도를 꺼낼 수 없듯 교육 또한 많은 사회적 조직과 정치, 경제와 얽매어 있다”며 “그렇기에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대한 노력과 총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컨퍼런스가 지속되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마무리를 지었다.



신축 단과대학동(서울) 임시사용 허가 날 듯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우리학교가 지난 11월 23일 동대문구청에 서울캠퍼스(서울캠) SPACE21 단과대학동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그간 동대문구청은 서울캠 정문 앞 도로문제를 해결해야 사용승인의 일관인 도로교통영향평가를 내준다는 완고한 입장을 펴왔다. 이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학교 구성원들은 단과대학동의 사용승인이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 하지만 우리학교와 구청은 지난 11월에 사용승인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SPACE21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은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법인과 구청의 갈등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건 학생이기에 임시사용승인과 정문 앞 도로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동대문구청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 건축과 이승민 주임 또한 “신축 단과대학동 임시사용승인에는 도로 문제를 이유로 단과대학동의 임시사용승인을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를 인정했다.

‘정문 앞 도로문제’란 2016년 대법원이 동대문구청에 14억여 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과 매년 1억 4,000만 원가량의 사용료를 경희학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발생한 갈등을 일컫는다. <관련기사 : (2보)행복기숙사 사용승인신청 제동...26일 입사 불투명/대학주보 온라인, 2017.8.17>

물론 정문 앞 도로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임시사용승인과 분리해 논의하는 것으로 동대문구청과 합의되면서 이과대학, 간호대학, 한의과대학의 이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 측은 “신축 행복기숙사 임시사용기간인 내년 8월까지 정문 앞 도

로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축 행복기숙사와 SPACE21 단과대학동이 모두 ‘임시’사용승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식’사용승인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축 행복기숙사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내년 8월, 단과대학동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그러나 여전히 법인과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의회 간 정문 앞 도로문제 관련 입장은 평행선을 걷고 있다. 학교 측은 “앞으로 구청과 법인, 학교 간 TF를 구성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오픈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이번 호가 2017학년도 2학기 중간호입니다

대학주보는 방학 중에도 온라인과 SNS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선

사설

공기(公器)된 사립대학에
일반재정지원 환영한다

학문 공동체인 대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높다. 2009년 이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맞춰 70%를 웃돌던 평균이 2015년 50%대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등록금 액수 자체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머무른다. 우리학교 2016년 등록금 의존율은 55.1%였다.

지난 세월, 사회가 사립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한 것 역시 대학이 가지는 공적 성격보다 그들이 요구하는 비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일 것이다. ‘반값’은 이루지 못했는지언정 대학들은 반강제로 등록금을 동결해야 했다. 사립대들은 주머니 사정 때문에 정부의 요구를 더 열렬히 쫓아다니게 됐다. 정부는 지원사업을 발미로 대학을 흔들었다.

ACE+, PRIME, CORE, CK, LINK+, BK21+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의 이름만으로도 이미 열거가 힘들 지경이다. 여기에 고교교육정상화 사업,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등 자잘한 사업은 수없이 많다. 각 대학은 기획실의 주 업무를 ‘재정지원사업 준비’로 두고 돈을 벌어오기 위해 각종 사업에 맞춰 매년 체질을 변화해야만 했다.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했고 PRIME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절정에 달해 정원 조정과 캠퍼스 이원화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대학은 사회의 공기(公器)다. 사립대학 역시 사회가 요구하는 이 책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난달 제2차 미래대학포럼에 모인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은 사립대 역시 사회를 위해 인재를 기르고 연구하는 공적 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역설했다.

지원은 차등적이었다. 사립대학에 가해진 잣대는 엄격한 가운데 이전 정부의 줄 세우기식 재정 지원 사업은 이중고였다. 사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급의 대학은 앞서나갔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사업 선정을 위해 추가적인 행·재정 지출을 감수해야 했다.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교육부는 국립대에 이어 사립대 입학금 역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입학금 수익의 20%를 국가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ACE+, PRIME, CORE 사업 등 기존 사업의 성격을 고쳐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을 만들고 상위 60% 대학에 대해 보편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최대한 많은 대학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환영할만하다. 그간 적립금을 쌓아만 두고 등록금으로 장사를 한다는 오명 아닌 오명을 써 왔던 사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편적 지원이 확대되면 사업을 따내기 위한 소모적 지출이 학생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사업계획서가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창학 정신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오롯이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밋빛 예상은 지원의 ‘뉘’이 충분히 클 때 현실이 된다. 앞서 말했듯 대학이 학문 공동체로 기능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인 크기로 변화한다면 대학은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는 더 엄중히 그 책무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변화가 대학으로 하여금 그 엄중한 물음에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

‘경력 단절 박사’ 박은정 박사
동서의학대학원 교수로 부임

미디어·여론 동향 2017.11.20. -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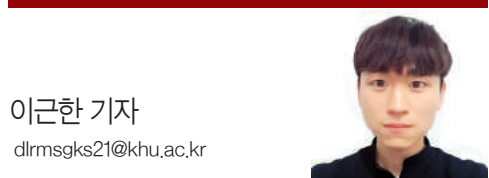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양 캠퍼스 제50대 총학생회 선거 결과, 서울캠퍼스(서울캠) ‘쿠토피아’ 선본은 낙선하고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열림’ 선본 김효형-심자용 후보가 당선됐다.(국제캠 총학 김효형-심자용 당선, 서울캠은 비대위 체제/대학주보 온라인, 2017.12.2) 찬성률 50.8%의 서울캠 쿠토피아 선본 박원규(사학 2014) 정후보, 송태현(경영학 2014) 부후보는 당선 조건을 충족지 못해 낙선했다. 투표율은 50.36%였다. 국제캠은 기호 1번 열림 선본 김효형(일본어학 2011) 정후보, 심자용(화학공학 2015) 부후보가 66.96% 득표로 당선됐다. 전체 투표율은 60.58%였다.



이 주의 주제 - 국제캠퍼스 마을

“안타까울 뿐이다”



사람들은 ‘안타깝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보기에 가슴 아프고 답답할 때 쓰인다’는 무거운 사전적 의미가 쉽게 입 밖에 나온다. 실상은 텅 비었다. 제삼자가 공감없이 말로만 표현한 안타깝다는 감정은 지극히 가벼울 뿐이다.

국제캠퍼스 우정원 뒷길에 위치한 ‘마을’의 상황은 좋지 않다. 임대료도 못 내는 가게가 태반이라는 ‘쌀쌀맞은닭’ 주인아저씨의 말을 텅 빈 거리의 모습이 증명한다. 십 여 년 전만 해도 매일 저녁이면 닭볶음 튀김과 맥주를 기울이던 학생으로 넘실대던 거리다. 국제캠퍼스와 시작을 같이한 작은 골목길에 지금은 12월의 찬바람만 휘날린다. 사람들은 이 쓸쓸한 거리를 두고 하나같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마을에 대한 학생과의 인터뷰에서 그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죠.” 정문 건너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학생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경쟁에 밀려 쇠락하고 있을 뿐 아닌가요?”라고 덧붙였다. 그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 편하게 버스를 타고 내린 정문 건너편에는 익숙하고 깔끔한 프랜차이즈가 즐비하다. 낡고 지저분한 마을보다 새 프랜차이즈

즈를 선택한 이들을 어쩌면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반면 마을 상인들은 당사자다. 당사자가 말하는 안타까움은 좀 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안타깝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마을 상권에 나이 든 점주가 많아 변화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자신의 앞가림도 하기 어려우니 변화를 위해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어렵고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 소비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상황은 더욱 나빠질 뿐이다. 소비자에게 추억과 전통을 찾아 마을에 가라고 아무도 강요할 수 없다. 강요한다 한들, 이는 일회적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유일한 방법은 당사자인 상인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뿐이다.

도시재생 산업에 대학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학이 가진 젊은 인력과 학문적 배경이 자본을 넘어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젊은 트렌드를 반영하기 힘들다”고 말했던 ‘DosMas’ 점주의 한숨에 우리 학생들이 답을 제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도움은 마중물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을이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마을 상인이다. 대학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기 이전에 당사자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지을 조직을 갖추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워만 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잇따른 대학가 단독방 성희롱
성 인지 감수성 제고할 때

세시봉

설지연 <국제 뉴실팀장>



최근 한 유명 래퍼가 단체 채팅방에서 외국 래퍼를 성희롱한 것이 알려져 대중의 못매를 맞았다. 해당 발언을 한 래퍼뿐 아니라 당시 채팅방에서 웃은 이들까지 성희롱 발언에 동조한 것이라며 비판을 받았다. 그 후 래퍼들은 사과했지만 상황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단독방 성희롱’이다.

모두가 알 듯, 대학가도 들불처럼 번지는 ‘단독방 성희롱’을 비껴가지 못했다. 최근엔 홍익대와 부경대. 그 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우리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임이 지난달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징계 강화는 단독방 성희롱을 해결할 완전한 자구책이 될 수 없다.

사건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적발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 단독방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 사건 예방을 위해 구성원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반적인 인권의식 개선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 인식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교수, 직원들보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청소년기를 지낸 학생들조차, 상당수는 자신이 체제화된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기자 본인도 고등학교 재학시절, 그리고 신입생 때 들었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떠올려 보면 벌써 기억이 희미하다. 성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같은 방법론적인 것들뿐이었다.

가해 학생 중징계 넘어

구성원 ‘성 인지 감수성’ 개선할 방안 찾아야

단독방 성희롱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당연하게도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항상 나온다. 지난해 우리학교 단독방 성희롱 사건을 취재할 당시 만났던 성평등상담실 상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도 소식이 없다. “부총장연석 회의에 관련 안건을 올렸으나 교무, 학사와 같은 사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물론 강의 하나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합의와 학사제도 변경 등이 필요하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징계를 강화하는 것 외에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의 대안을 학교는 만들 수 있는가?

대학은 교육기관이다. 대학사회 내에서의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성 관련 사건들을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은 건전한 대학사회를 꾸리는 방법이며, 동시에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옥 | 편집장 이수형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2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921

입학금 폐지 ‘눈 가리고 아웅?’ 개별대학 합의 없어 갈등 지속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돌연 2022년까지 4년제 사립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과의 합의가 끝났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4년제 사립대는 현재 받는 입학금 가운데 입학경비에 쓰이는 실 금액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4~5년에 걸쳐 감축하고, 실 금액 20%는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발표대로라면 우리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입학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지원받고 입학금 91만 2천 원의 80%인 약 73만 원을 2022학년도까지 매년 16%씩 감축해야 한다. 매년 12만 원 가량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학교를 포함한 주요 사립대들은 사실상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2018학년도 신입생이 내야 할 입학금 감축 계획부터 감감무소식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재정예산처 이승

민 계장은 “사총협이 교육부와 합의를 한 것이지, 일반 대학들은 교육부와 따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없다”며 “사총협에 속해 있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각 대학별로 교육부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학교는 입학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의 결기구를 거치는 내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폐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입학금의 20%만을 지원해준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이 계장은 “모든 대학이 입학경비로 입학금의 20%만 쓴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우리대학 뿐만 아닌 모든 대학에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로 80% 감축하는 건 맞다”며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반대하던 사총협 측을 어떻게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사립대에 대해서 일반 재

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겠다는 설득을 했으며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고, 공개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 지원 분을 제외한 입학금의 나머지 80%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미래정책원 권오병 원장은 입학금 폐지 논란에 대해 “현재로서 입학금의 80%에 대한 부담은 사립대학이 온전히 알아서 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입학금 단계적 폐지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무 기관인 교육부가 올해 안에 실행하려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사립대 입학금 폐지 발표 이후 한양대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학생들의 힘으로 입학금 폐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환영의 성명을 냈다. 사립대와 교육부 사이의 교통정리가 명확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당장 입학을 앞둔 2018학년도 신입생을 포함해 학생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개관 7개월 차 선승관, 학생들은 “여기 뭐예요?”

이근한 기자 dlrmsgks21@khu.ac.kr

【국제】선승관이 관리자 부재로 개관 7개월이 지나도록 제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선승관은 국제캠퍼스 SPACE21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개관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지하 헬스장과 1층 체육 경기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간들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미래정책원 전략기획팀 이현아 계장은 “모든 것은 선승관 관리자가 아직 인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체육 경기장에선 지난 10월 31일 'Career Festival'이 개최되는 등 국제캠 내 행사 공간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 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은 미진한 실정이다. 체육대학 행정실 김동주 과장은 "체육대학 학생들이 선승관 1층 농구 경기장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아 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선승관 개관 이전부터 사용자가 명확히 정해진 지하 AT센터와 태권도장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헬스장은 아직 운용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해 학생 불만이 많다. 박도병(스포츠의학 2014) 씨는 “현재 학교에 일반 학생을 위한 제대로 된 헬스장이 없다”며 “선승관에 드디어 헬스장이 생긴다고 들었지만 아직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정확한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일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은 체육대학에 위치한 헬스장밖에 없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시간이 운동부 훈련 시간으로 운용돼 실제로 일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선승관'이라는 정식 명칭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선승관 홍보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몇 차례의 메일 정도였다. 건물 내외부 안내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선승관 입구와 로비에는

마지막까지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태원(글로벌게미니케이션학 2014) 씨는 “새로 지어진 건물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 들어가 보았으나, 아무런 안내판이 없었다”며 “지금 취재하며 건물 이름을 알았다”고 말했다. 1층 화장실 또한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등 선승관의 현재 운용 실태를 보여주었다.

이현아 계장은 “인선의 지연은 단순히 선승관이라는 체육시설 건물만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뽑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때문”이라며 관리자 부재에 대해 답했다. 이 계장은 “선승관 관리자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국제캠 내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 시설로서의 역할 확대에 관한 논의를 맡을 것”이라며 “이는 더 나은 시설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과업이기에 인선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선승관 관리를 위한 조직위원회(거버넌스)가 꾸려졌으며, 선승관 활용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정서영·임종환 교수 선정돼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지난달 15일, 우리학교 임종환(인문융합연구센터) 교수, 정서영(나노의약생명과학) 교수가 약리학 및 독성학, 농업과학 분야에서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선정한 '2017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됐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900개 기관에서 발표한 과학계열 논문 13만 건을 평가해 농업과학, 면역학, 화학 등 21개의 분야에서 '논문 피인용 횟수가 많은 연구자(HCR)'를 선정하고 있다. HCR은 논문의 피인용 횟수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연구자 그룹으로, 세계적인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 옛 톰슨사이언스)에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에 11년간(2005년 1월~2015년 12월) 등록된 논문 약 13만 건을 평가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약 3,300명 중 한국인은 임종환, 정서영 교수를 포함해 28명이다.

임종환 교수는 약 30년간 식품공학 및 식품 포장 분야 관련 연구를 진행해 생분해성 포장재·기능성 나노컴포지트(nanocomposites) 등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의 우수성과 영향력을 인정받아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창조대상, 2017 한국 식품과학회 학술대상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HCR에 선정돼 ‘논문의 피인용 횟수 상위 1%’의 지위를 유지했다. 임종환 교수는 이번 HCR 선정에 대해 “제가 연구한 분야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분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운이 좋았을 뿐,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임종환 교수는 연구하는 나노컴포지트 포장재는 생분해성 포장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했다. '생분해성'이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에 의해 오염물질이 분해될 수 있는 성질로, 이를 활용한 생고분자, 생분해성 포장재는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보다 잘 썩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다. 그러나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만든 만큼 물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임 교수는 생분해성 포장재에 나노기술을 접목시켜 물성을 강화해 단점을 감소시키고 자외선 차단, 항균성과 같은 기능성까지 갖춘 '나노컴포지트 포장재'를 연구한 것이다. 임 교수는 "포장재에 항균성을 넣으면 기존 방부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밖에 있으므로 직접 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에서 훨씬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나노컴포지트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나노기술의 접목으로 많은 부분 보완됐지만 아직은 플라스틱에 비교해 약한 물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가공의 어려움 등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임종환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또한 개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생분해성 포장재를 이용한 포장, 나노기술을 접목한 포장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실용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덧붙여 “또 이러한 연구를 같이 하고, 약 30년 동안 쌓아온 연구를 이어나갈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싶다”며 미소를 지었다.

서울캠퍼스 부총장인 정서영 교수는 의약품 제재화, 분석 및 품질평가 및 약물전달체제(Drug Delivery System, DDS)에 대해 연구를 지속해왔다. DDS란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표적 부위에만 발휘되도록 최소의 양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다. 정서영 교수는 “DDS는 꼭 약을 먹어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멀미할 때 귀 뒤에 붙이는 멀미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말하며 “국민 파스 케토톱을 개발할 때도 내가 도움을 줬다”며 웃었다.

이번 HCR에 크게 기여한 논문은 암 표적 치료제에 관한 논문이다. 이를 통해 정서영 교수 연구팀은 ‘키토산’과 나노입자를 이용해 변형된 나노입자를 만들어 암 세포에만 타격을 줌으로써 주변 정상세포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치료제를 연구했다. 정 교수는 “기존의 암치료제는 소위 말해 ‘응당폭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런데 응당폭격을 하던 정상세포들 또한 없어지니 ‘크루즈 미사일’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 정 교수는 “암세포의 혈관은 일반 세포보다 우둘투둘한 비표장도로 같다. 이런 암세포만의 특성을 이용하여 암세포 혈관 세포막에만 침투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고 싶었다. 암 표적 치료제는 나노기술을 통해 암세포의 혈관으로 들어가 약을 분사시킬 수 있도록 한다”며 DDS와 나노기술 접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는 그동안 내가 겪었던 경험을 연구와 교육의 증진에 활용할 것”이라며 “좋은 제자를 많이 두는 것이 앞으로의 궁극적 목표이다”고 말했다.

2017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방법 및 강의내용 개선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기간: 2017. 12. 1.(금) ~ 12. 28.(목)
2. 대상: 서울 · 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3. 대상강좌: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4. 성적 열람 및 공시 기간: 2018. 1.2.(화) ~ 1.4.(목)
5.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조치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2017. 12. 15.(금) ~ 12. 29.(금), (단, 12. 24. ~ 12. 27. 제외)
 - ※ 성적입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2018. 1. 2.(화) ~ 1. 4.(목)
6. 강의평가 실시 방법
 -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 2)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 3)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 4)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 5)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 6)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 7)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 8)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과

기획보도

직원 절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은 ‘감감’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교수도 우리를 조교로 취급했어요” 우리학교 비정규직이었던 김 씨가 털어 놓은 첫마디다.

상사의 배려로 사무실만은 화목했다. 고마운 마음에 김 씨는 최선을 다했다. 매순간 노력했던 덕분일까. 퇴사 한 달 전 상사로부터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다. 부서도 김 씨의 정규직 전환을 학교에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로부터 돌아온 결과는 단호했다. 승인 거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지난 8월 31일을 끝으로 김 씨는 학교를 떠났다. “2년 동안 지낸 곳인데... 아젠 아쉬움만 남아있어요”

2017학년도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따르면 우리학교 비정규직은 463명으로 전체직원 903명의 51.3%에 달한다. 직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꼴이다. 이는 수도권 주요 사립대 8곳과 비교해 2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특히 경희사이버대학은 전체직원 118명 중 84명(71.2%)이 비정규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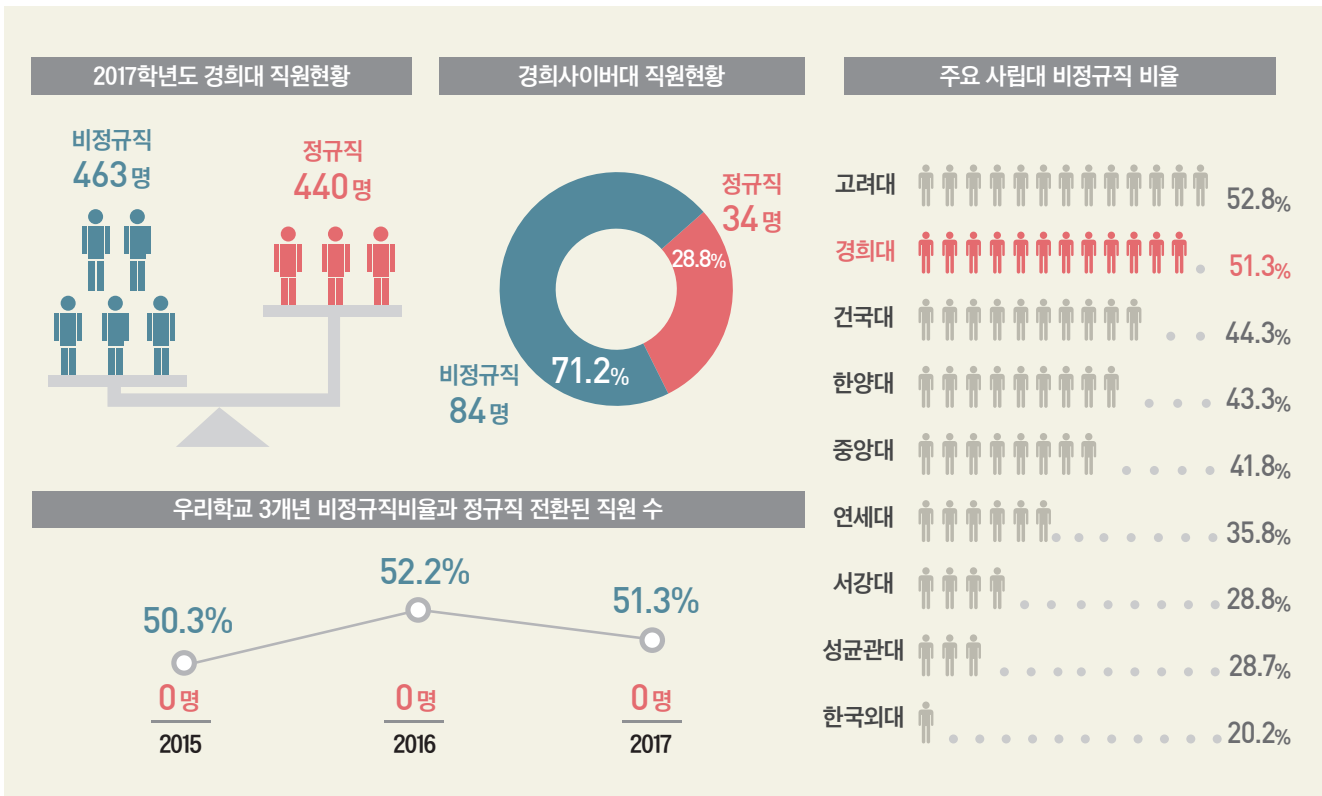
우리학교 비정규직 임금은 같은 연차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 또한 자녀학자금 지원과 사학연금 등 학교가 정규직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혜택도 누릴 수 없다. 비정규직 정 씨는 “내용 취합만 해서 올리는 신입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사실상 실무진으로서 업무량은 더 많지만 임금은 훨씬 적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대학노조) 김병국 정책실장은 “대학 기간제 노동자 임금이 대부분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정도”이라며 “같은 대학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7월,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정규직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 채용 축소를 유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다수의 고용주들이 입법과정과 법을 악용하면서 오히려 고용불안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이라는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직장을 잃게 됐다. 우리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우리학교 직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인사처



우리대학 전체 직원 중 51%가 비정규직이다. 타 대학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김혜란 계장은 “현재 우리학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3년간 없다”고 설명했다. 이경석(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노동 유연성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규모가 과도해 교직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한 가족의 가정으로서 고통이 심하다”고 말했다. 노동법을 강요하는 강희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값싼 물건을 많이 사듯 비정규

직 노동자들을 늘려왔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간과할 수도 없고, 선불리 해결하기에도 인력과임금이 부담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교육지원서비스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대학노조) 경희지부장이기도 한 전자정보대학 박경규 과장은 “학교를 떠나야하는 비정규직 고용조건상 책임소재가 있는 업무를 주기 힘들다”며 “이는 행정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규직에게도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또한 박 과장은 “2년마다 업무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비효율적”이라며 “노동자이기 전에 가족인 직원을 2년이면 떠나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학생 감소와 등록금 동결 국면에서 우리학교만의 노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긴 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사처 윤제학 처장은 “지난 9년간 등록금은 인하되거나 제자리이었지만 인건비는 상승하는 등 학교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정규직은 30년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전국대학노조 김병국 정책실장은 “국가 차원의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안정적 재정지원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함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두 노조는 자율운영제가 비정규직을 양산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비정규직문제는 자율운영제가 재정·인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짚었다. 지난 2009년 우리학교는 민주적 대학운영과 단과대학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자율운영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학사, 교무, 장학, 관리 등 기존 대학본부의 많은 업무들이 단과대학의 소관으로 넘어갔다. 단과대학의 업무 범위가 커지자 노동인력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인력공급의 대부분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경희대노동조합(경희노조) 김종현 위원장은 “중·장기 정책을 갑자기 폐지하긴 어렵지만 단과대학으로 이양됐던 업무를 부분적이거나 다시 대학본부로 가져와야 한다”며 “자율운영제로부터 나타나는 재정·인력 문제 해결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대학노조 경희학원지부 박경규 지부장은 “우리학교 부서가 다른 학교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많고 세분화되어 있다”며 “많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노동인력 수요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강의하는 이경석 교수는 우리학교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리학교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윤리적 가치를 교육이념으로 내세우는 만큼 학교가 비정규직을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들이 인격적 대우를 받는 세상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노동운동가인 성균관대 하종강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도 “후마니타스를 표방하는 경희대학교가 다른 대학보다 비정규직문제를 책임감 있게 선도적으로 해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첫째주부터 학교와 경희노조의 공동 주관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TF’가 시작된다. 인사처 윤제학 처장은 “비정규직의 처우와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직 68명 모두 국제캠, 비정규직 1/3 간접 고용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우리학교 대학알리미 직원현황 공시에 집계된 파견직 68명이 모두 국제캠퍼스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캠퍼스 파견직 직원은 68명으로 비정규직 207명의 32.9%에 달한다. 비정규직 3명 중 1명은 간접 고용된 것이다.

국제캠퍼스 인사처는 “수원, 용인 지역 위치상 인력풀이 작다”며 “파견업체의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으면 채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국제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성균관대(수원)와 한국외국어대(용인)는 파견직으로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아주대(수원)의 파견직 직원 수는 7명으로 전체 직원 264명 중 2.7%에 불과했다. 아주대 총괄지원팀 김예진 직원은 “인력풀이 작아 어려운 면은 있지만 아주대에서 파견직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총무처 김도경 과장은 “성균관대는 캠퍼스와 지역을 구분해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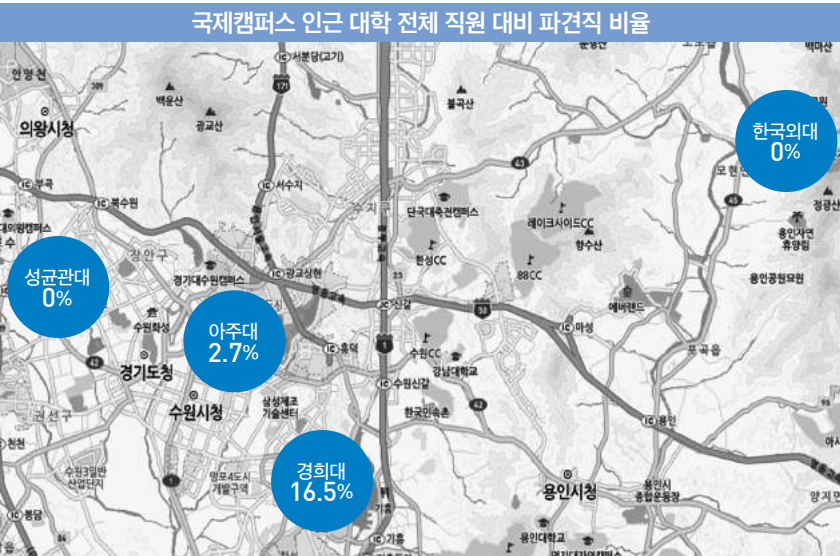
경희대노동조합(경희노조) 김종현 위원장은 “수원, 용인을 포함한 경기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취업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채용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며 “인력풀이 작아 파견회사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민주노총 경희지부) 박경규 지부장은 “대학이 노무관리를 편리하게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인사처 윤제학 처장은 “계약직과 파견직의 차별대우는 없다”고 단정했다. 실제로 동일 부서, 동일 업무를 하는 서울캠퍼스 A 씨와 국제캠퍼스 B 씨의 월 임금은 모두 세전 155만원으로 같았다. 하지만 간접고용이라는 계약 조건 때문에 파견직의 고용안정성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낫다는 게 노동계 중론이다.

파견직은 계약직과 달리 파견업체를 통해 학교가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다.

학교에서 일하고 업무지시도 학교로부터 받지만 이들의 소속은 학교가 아닌 파견회사이다. 성균관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주임교수는 “노동조건이나 인사권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이 파견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를 외면하는 경향이 크다”며 “노동법상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만큼 지양해야 하는 고용형태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김병국 정책실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매년 파견 회사와 재계약을 거쳐야 하고,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해고 되는 일도 있다”며 “파견직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안정성이 매우 불안한 것으로 뽑힌다”고 말했다.

전국대학노조 박경규 경희지부장은 “국제캠퍼스가 서울캠퍼스에 비해 많은 파견직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학교가 주장하는 경희가족정신에 따라 비정규직이라도 파견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 지도

지역 위치상 파견업체의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으면
채용이 어려운 상황

예술가처럼 생각하라!

전문가 칼럼



정재훈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이런 학기 처음으로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한 강좌를 맡아 강의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95년 가을 이후 22년만의 모교 방문. 수업이 있는 매주 목요일, 설레는 마음으로 캠퍼스를 찾게 되었다. 캠퍼스의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사람은 더 많아진 것 같고, 공간은 오히려 작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오가며 마주치게 되는 낯선 사람들도 마치 과거에 알았던 사람마냥 친근하게 느껴졌다. 세월이 흘러 스무 살 대학생들 둔 학부모가 된 나였지만, 캠퍼스를 걷고 있노라면 나의 시계는 28년을 거슬러 내가 스무 살이던 1989년의 어느 날로 되돌아가곤 했다.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후배들 앞에 선다는 것은 생각보다 버거운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의 눈망울 속에서는 대학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경험한 나의 모습이 읽혔다. 어떻게 하면 오래 전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지만 간절히 기대했던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나의 고민은 깊어 갔고,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매순간 반응이 매섭게 느껴졌다.

불확실한 미래사회

예술가처럼 생각하라

거침없이 흘러가 버린 12주. 벌써 한 학기의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업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예술가처럼 생각하라'는 결론부로 다가가고 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회와 위협에 대한 논의들이 화자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지혜와 지식체계가 통용될 수 없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중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어떻게 하면 혁신의 가속화와 가치의 대격변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출처=Pixabay

까? 그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예술가처럼 생각하기’라 생각한다.

예술가는 정해진 미적 가치를 거부하고 작품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한다. '예술가처럼 생각하기'가 오늘날 성공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주목 받게 된 이유는 예술가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강좌의 마무리 시점에서 예술가처럼 생각하기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한 학기 수업을 통해서 피카소나 뉘홀름과 같이 탁월한 예술가가 되는 법을 전수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자세로 예술적 작업을 수행했는지, 창작의 과정 속에 무엇하게 된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며, 또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그들을 성공적인 예술가로 만들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술가의 사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예술가는 창조자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탐색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것을

투여하지 않으며, 타인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한다. 둘째, 예술가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창작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과 빈번한 실패를 도약을 위한 기회로 수용한다. 셋째, 예술가는 예술적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들은 섬세한 감각을 도구 삼아 주변의 사물과 상황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일상 속의 아름다움을 쉽게 발견하며, 이러한 경험을 작품의 모티프로 사용한다. 넷째, 예술가는 평범함(mediocrity)에 만족하지 않고 탁월성을 부단히 추구한다.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달콤한 위로와 칭찬에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정한 예술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다섯째, 예술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법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배우고 자신의 작업에 적용한다.

‘Entrepreneur(기업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도전을 마다않는 예술가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기업가’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예술가이다. 생각하는 존재(H. sapiens)로서 인류는 무한한 상상과 창조의 DNA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동적인 소비자로서의 태도를 버리고 창의성, 공감, 도전정신, 독창성과 탁월성의 추구, 개방적 태도라는 예술가적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무장한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되든 직면하게 될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새로운 해답은

예술가적 관점에서

이제 학기가 곧 끝나고 나는 '선생'의 자리에서 '선배'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작 진짜 공부하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될 때 이루어지는 법. 수업을 통해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함께한 후배들의 기억에 남아,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밑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예술가처럼 생각하기'를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창조의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아직 쓰여지지 않은 미래를 창조해가며, 변화의 중심에서 미래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참여마당

강봉주
(스페인어학 2013)



위선과 책임

로마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참가하면서 교육제도가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느꼈다. 하나는 우리가 위선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의 당사자인 교수와 학생이다.

로마컨퍼런스에 참가한 연사에게서 처음 느낀 감정은 불쾌함이다.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한다며 모인 그들이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듯 보였다. 시혜적 관점에서 ‘너희를 위해 고민을 해봤다’ 정도의 불투명한 비전만을 제시했다. 깊이 있는 고민이나 성찰이 느껴지지 않아 분노했다.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은 엘리트 석학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하지 않는다는 실망과, 표면적인 변화만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불쾌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 또한 그들과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난민이나 기아문제가 멀게 느껴지듯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치열하게 고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엘리트들이 내놓은 결론은 교육에 직접 닿아있는 우리의 요구나 필요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렇다면 제도를 개혁해 우리의 문제를 그들의 삶에 직결시키면 된다.

강의평가제도와 상담교수제가 대표적이다. 강의평가 결과는 정교수의 명성에 흡입이 내겠지만 삶에 큰 타격은 주지 못한다. 상담교수제도 마찬가지이다. 학생은 상담을 받지 않으면 수강 정정기간이 짧아진다. 교수에게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고 알고 있다. 수업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과 소통해야 할 의무를 지닌 쪽은 교수이다. 로마컨퍼런스를 준비하며 논의했던 학생이 교수에게 원하는 자질은 멘토이자 교육자로서의 면모일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대학은 대학본부, 교수, 학생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대학본부와 교수는 고용 관계를 맺고, 학생은 대학본부에 자원을 제공하며 상호작용한다. 정작 교육 당사자인 교수와 학생 사이는 일방적이다. 학생에게 교수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물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는 다수 교수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비롯한 절실함이나 입장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학생이 희망하는 상담교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강의 평가 결과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은 교수가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지 않겠는가.

교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사회 안에도 위선과 책임회피는 존재한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쉬이 말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원하는지는 의문이다. 승자독식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다고, 혹은 오를 수 있다고 착각한다. 노력하면 1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달기 때문이다.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두려워한다. 변해야 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은 그저 말에 그친다.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교육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문제이다. 그 누구도 우리만큼 절실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으며 노력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우리 삶에 책임을 다하자고 말이다.

영어의 전와외국어

아직도
외국인 앞에만 서면
병어리 입니까?

도대체 뭘 배우셨습니까?

독해 중심의 외국어,
시험 위주의 외국어 학습시대는
지났습니다.



경희대학교 전와외국어 개설강좌

회화반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한국어
비즈니스반	영어: Business week, Presentation, Customer relations, Wine wise, Global Manners
	중국어: Global Chinese Business
	일본어: OKI 비즈니스 일본어 회화
공인시험 준비반	영어: TOEIC Speaking, OPIC, TOEFL, TEPS, G-TELP, IELTS, SPA, IELTS
	중국어: HSK, BCT, TSC, CPT 일본어: SJPT, JLPT
영어연결 준비반	Job Interview, 항공 승무원 영어인터뷰
특수전공목적 영어반	교육/미디어: 대학행정실무영어, 대학 교양영어 등
	금융/경영/MBA: 재무영어, 회계영어, 경영영어, MBA 영어, 마케팅 영어 등
	관광/호텔/외식경영: 호텔영어, 관광영어, 요리영어, 외식업영어
	의학/의료: 의학영어, 간호영어, PA(의료보조 영어), 물리치료 영어
	IT/공학/이화: 전기영어, 전자영어, 기계영어, IT영어, 연차나어학 영어 등

경희대학교 전와외국어 수강신청안내

수업회선	수업시간	수업기간
주2회(화목)	10분/20분 중 선택	1개월/3개월 중 선택
주3회(월수금)		
주5회(월-금)		

01

수강신청
 * 홈페이지 접속
 * 수강신청 폼에서 확인 후 접수

02

혜택대상료
 * 신규회원(공인영어시험 기준)
 * 학습지 수수료 및 교육자료 할인

03

수업진행
 * 학과/과목 맞춤진행
 * 수준에 따른 영어원 1:1 수업

04

수강관리
 * 학습진행 수료율 확인 및 수료평가
 * 레벨테스트와 비교 진행

**무료 레벨 테스트
신청하기**

**무료 체험(영/중/일)수업
신청하기**

**수강
신청하기**


경희대학교 전와외국어

분야: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 khu.kangcademy.co.kr |

02.961.0871~2

인터뷰

LG글로벌챌린저 대상팀 “비결은 후마니타스”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국내 해외 탐방 프로그램의 대명사인 ‘LG글로벌챌린저’ 프로그램에서 우리학교 학생 박수진(관광학 2012), 심지민(외식경영학 2012), 이재혁(건축공학 2012), 이다솔(관광학 2013) 씨로 구성된 ‘스무살’ 팀이 올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외탐방의 기회를 갖는 ‘챌린저’가 되기 위해선 평균 21.1:1에 이르는 경쟁률을 통과해야 한다. 탐방 보고서 심사 결과 경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1등을 차지한 스무살 팀은 대상 수상에 우리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의 배움이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영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 교육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 탐방국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탐방국가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에 대한 다솔 씨의 대답이었다.

‘스무살’ 팀의 해외탐방 주제는 ‘정치교육’이었다. LG글로벌챌린저를 통해 ‘학생정책토너먼트’ 교육과정 도입을 제안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함이었다. 재혁 씨는 “지금까지 수상작들을 보면 이공계열 주제가 많았는데 저희는 인문 쪽 주제라서 ‘모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인문학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준 덕에 주제를 확정할 수 있었어요. ‘학생정책토너먼트’ 교육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시민교육 수업을 많이 참고했어요.” 그들은 학부생활 동안 들은 후마니타스 수업의 기억에 기대어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처음부터 그들이 ‘정치’ 주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한국 교육을 받은 어느 누구처럼 정치란 그들에게도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상이었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뉴스 보고 사회에 무슨 일이 있구나, 정도?”라고 그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대상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된 그들이지만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겨야 했다. 주제를 정하는 과정부터 그랬다. 지민 씨는 “주제를 정하기 위해 국내 탐방을 다닐 때 마다 저희가 제안한 주제들이 한국에서 실현 불가능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어서 막막했어요”라며 당시의 감정을 떠올렸다.

해결의 길은 어느 때처럼 뜻밖의 경로



독일 요하네스 쿠펜버그 대학의 폴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수진, 이재혁, 이다솔, 폴 교수, 심지민 씨.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인문학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준 덕에 주제를 확정할 수 있었어요. ‘학생정책토너먼트’ 교육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시민교육 수업을 많이 참고했어요.”

로 찾아왔다. 다솔 씨는 “올해 3월쯤 중 각에서 모임을 했는데 그 때 정치적 사건에 따라 시위도 많이 있었어요”라며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는데 왜 바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선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 원인이 ‘정치 교육의 부재’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라고 설명했다.

팀원 모두 스무 살이 넘었지만 팀명을 ‘스무살’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혁 씨는 “지금은 시민교육 수업을 들으며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중,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바꾸면 준비되지 않은 스무 살이 아닌 준비된 스무 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라며 ‘스무살’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무 살 없는 스무살 팀입니다”는 말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네요”하며 팀 명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학생정책 토너먼트’ 교육법을 제안했다. 수진 씨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규 수업시간 중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은 다음 정책으로 만들고 무엇이 더 나은지 투표를 하는 거예요. 학교 대표 정책을 뽑아 지역

구에 발의까지 하는 과정이 ‘학생정책 토너먼트’예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민 씨는 “간단히 말하면, 지역 사회의 문제를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해주자는 취지예요”라며 50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요약했다.

방문한 영국, 독일, 핀란드 중 그들은 독일 탐방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한다. 수진 씨는 “독일 대학의 교수님께 한국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셨어요”라며 “정치교육은 당연한 건데 왜 반대를 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지민 씨도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며 학생정책 토너먼트 교육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주제선정, 계획서 제출, 해외 탐방 그리고 보고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스무살 팀은 10개월의 기간을 함께 했다.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묻는 말에 그들 모두 하나같이 ‘최종 보고서 제출’이라 외쳤다. 보고서를 위해 합숙까지 불사했다고 한다. 수진 씨는 “학관 세미나실에서 회의하고, 동방 가서 자고, 편의점에서 삼투 사서 머

리 감고 했어요”하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각자 의견이 달라서 한 주제 가지고 몇 시간씩 토론한 적도 있었어요. ‘정치교육’이라는 말을 쓸 것이냐, ‘시민교육’이라는 말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만 며칠 동안 이야기한 것 같아요”하는 다솔 씨의 말에서 대상 수상 팀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내용마다 실전이 오겠지만 서로 힘들었던 점을 솔직히 털어놓는 공유의 시간을 가지며 화합을 다졌다. 수진 씨는 “갈등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밖에 없었고 화합은 저희 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대상 수상은 예상하지도 않았던 수진 씨는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수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이름이 안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취업 준비하자, 수고했다 말하고 있었어요”라며 당시 심정을 언급했다. “대상에 저희 팀 이름이 불려서 너무 놀랐어요”하는 다솔 씨의 말에서 수상 발표 순간의 떨림과 설렘이 그대로 느껴졌다.

수진 씨는 LG글로벌챌린저에 도전할 후배들에게 “1년을 오롯이 투자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만큼 값진 경험이라는 데에 목소리를 모았다. 재혁 씨는 “저희는 운 좋게 상까지 받았지만, 상을 꼭 받지 못하더라도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로 탐방을 하다 보면 보다 넓은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독서토론 스터디 그룹 ‘아레테’를 통해 비판적 시각을 길렀다는 재혁 씨는 “후마니타스 칼리지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10개월 동안의 대장정이 끝난 지금이지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뻣뻣한 스케줄을 이행해야 했다. 다솔 씨는 “인터뷰 도와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행사 진행 봉사도 했어요”라고 답했다. 이어 “운전면허 시험은 1월에 합격했는데 그 동안 너무 바빠서 아직 면허를 못 따고 있어요. 이번 주에 따라 가요”라고 말하는 그녀에게서 후련함이 느껴졌다. 앞으로 스무살 팀원들은 입사와 인턴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면허 시험에서도, 회사 생활에서도 지난 10개월간의 기억을 되살려 성공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세계 초일류 융복합 대학

admission.dgist.ac.kr

2018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전형일정			
구분	1차	2차	3차
원서접수	6.29(목)~7.13(목)	10.12(목)~10.26(목)	12.14(목)~12.28(목)
면접 대상자 발표	7.27(목)	11.9(목)	'18.1.11(목)
면접 평가	8.7(월)~8.14(월)	11.13(월)~11.21(화)	'18.1.15(월)~1.22(월)
합격자 발표	8.28(월)	12.4(월)	'18.2.9(금)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admission.dgist.ac.kr

전공별 모집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정보통신융합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 가능
에너지공학전공	
뇌·인지과학전공	
로봇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뉴바이올로지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장학혜택 및 특전	
납입금 면제	·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DPF 선발 (DGIST Presidential Fellowship)	· 특별장학금 : 3,000,000원/학기 · 연구지원비 : 10,000,000원 이내 · 해외대학 연수비 : 16,584,000원 이내
기숙사 입주	·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 연수 지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urich, UC Berkeley, Virginia 대학) ·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 박사과정 대상 병무청 배정인원 내 편입 가능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 DGIST 융합연구원 소속 11개 센터 및 연구실 · 한국뇌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DGIST 서울홍보센터(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703호)
· 전공별 교수와의 소규모 면담 운영(약 1시간 50분 진행)
· 사전신청 필수(신청자가 없는 전공은 설명회 미실시)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DGIST 입학홍보페이지 참조

온라인 양식 제출
admission@dgist.ac.kr으로 송부

문의처 T. 053-785-5146~7 | E-Mail admission@dgist.ac.kr

대구경북과학기술원